



사슴만성소모성 국내 발생

- 경남 진해 · 충북 보은 등 발생, 현재 마무리 단계 -

2002년 이후 국내 발생이 없었던 사슴만성소모성질병(이하 CWD)이 최근 또다시 발생, 양육업계를 초긴장 상태에 빠지게 했다.

지난 11월20일 경남 밀양의 한 도축장에서 도축 의뢰된 사슴 9마리 중 4마리가 CWD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해당 사슴의 축주인 경남 진해 A씨 농장 사슴 전두수(18두)를 11월25일 살처분하는 동시에 역학조사를 실시, A씨가 사슴을 구입해 온 충북 보은의 B씨 농장 사슴 전두수도 같은 날 전두수(11두)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후 살처분된 모든 사슴에 대한 CWD 검사 실시 결과, B씨의 농장 사슴 1두에서 CWD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 농장 사슴을 도축한 경남 밀양의 도축장에 대해서는 도축장 전면 소독 실시 및 향후 3개월간 사슴에 대한 도축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11월20일 최초 발생 직후 농림부와 본회는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살처분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협의도 실시했다.

농림부와 본회는 CWD 양성이 나타난 A씨와 B씨 농장을 중심으로 유통 경로를 파악, 발빠른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하고 살처분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제출하는 사슴유통가격 조사표에 따라 보상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에 본회에서는 전국 8개도에서 사슴유통가격을 조사, 전국 평균 가격을 산출한 후 농림부에 정식 제출하였으며 농림부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살처분 보상을 실시했다. 본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사슴가격 조사표는 나이와 품종, 녹용생산능력에 따라 금액이 세분화되어 있다.

한편 본회와 농림부는 보상가 산정과 더

불어 양성축 발생 확인이 된 A씨와 B씨 농장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유통 경로가 확인된 10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으며 개연성이 높은 농장 3곳, 8두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했다. 살처분 후 정밀검사 결과 농장 1곳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해당 사슴농장에 대한 전두수 살처분이 실시됐다.

이후 1월초 경남의 한지역에서 의심 증상을 나타내다 폐사한 사슴을 정밀검사한 결과 CWD 양성반응을 나타냄에 따라 해당 농장 사슴 28두에 대해 살처분이 실시되었으며 유통경로를 조사, 개연성이 높은 2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및 정밀검사 작업이 실시됐다.

이로서 11월20일 이후 CWD 양성반응을 나타내 전두수 살처분이 이루어진 농장은 총 4개소이며 동거축으로 개연성이 인정돼 일부 살처분이 이루어진 4개소 농장 등 총 8개소 농장에 대해 살처분이 이루어졌다.

1월초 이후 정밀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CWD 양성반응을 나타낸 사슴은 현재까지 없으며 이에 따라 역학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CWD란 질병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체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바이러스 보다 작은 비정상적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동물끼리 접촉에 의한 수평전파와 CWD에 감염된 어미로부터 태어난 새끼 사슴에서 CWD가 발견된 사례가 있어 수직감염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전염에 의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CWD발생 사슴 뿐 아니라 동거축까지도 전면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CWD에 대한 예방책 및 치료방법이 없어 CWD 확산 방지는 오로지 살처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안국양육**